

|(주)고려비엔피

■ 환절기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한 “메타플루 20%액” 출시



환절기 호흡기질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송기연)에서는 최근 ‘메타플루 20%액’을 출시했다.

‘메타플루 20%액’은 고농도 플로르페니콜과 중쇄지방산 30%가 함유되어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극대화된 제품이다.

또한 특허 등록된 고기술 제법으로 제조되어 작은 용량으로도 닭 대장균증 및 돼지 흉막폐렴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특허등록번호 : 제 10-064526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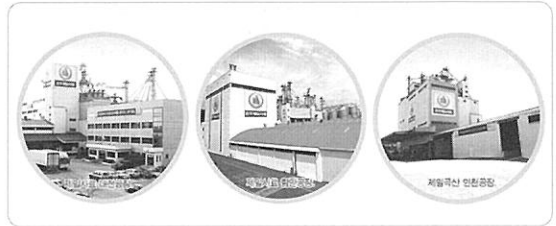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철에 더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가축이 환절기 호흡기질병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메타플루 20%액’이 폐사율 감소와 생산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품문의 : 070-7433-1034

|천하제일사료

■ 제일사료·제일곡산·천하제일 3개 법인 합병

제일사료(주)·제일곡산(주)·(주)천하제일 등 천하제일사료의 3개 법인이 합병, 새롭게 출범했다. 천하제일사료는 그동안 기존 3개 법인을 기업연합으로 운영해오던 방식에서 합병을 통해 단일회



사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천하제일사료는 1962년 4월 17일 회사명 제일산업(주)로 배합사료를 제조하기 시작했다. 1972년 제일사료(주)로 상호변경을 하고, 1989년 제일곡산(주), 2002년 (주)천하제일과 단일브랜드회사로 힘을 합쳤다.

이번 3사 통합으로 천하제일사료는 중소기업을 벗어나 굴지의 축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것. 앞으로 재계에서 축산 분야의 입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96년, 2004년에 두 법인이 자산, 부채, 자본 등 세무상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꾸준히 3사의 통합작업을 해오던 중 창사 50주년을 맞이하며 7월 1일부로 통합운영을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윤하운 천하제일사료 총괄사장은 “3사 합병으로 회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축산업계를 위하여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사장은 “시너지 효과로 경영 효율성의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덩치가 커진 만큼 고객을 더 크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천하제일사료 관계자는 “3사 통합으로 회사가 단순화 되면 공급 측면에서 고객의 편의성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외적으로 기업 투명성

을 증가시켜 천하제일사료가 추구하는 윤리경영을 확고히 하고, 기업이미지와 인지도 향상으로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사 통합으로 인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두산생물자원 백두사료

■ 양계 ETC 교육 실시



두산생물자원(대표이사 윤영호)은 지난 7월 19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양계전문화 과정인 양계 ETC(Expert Training Course) 교육을 실시했다.

두산생물자원 영업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계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양계농가 컨설팅에 접목하여 한 차원 높은 사양관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교육의 핵심주제는 ‘하절기 더위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이었으며 수준 높은 전문교육과정을 전 영업사원들 모두 진지한 자세로 수료했다.

이중한 양계PM은 “매년 무더위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유난히도 금년 여름은 더위스트레스가 심해 양계농가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이번 양계ETC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으로 인해 영업부 직원 모두 차별화된 하절기 컨설팅을 통한 농장 생산성 향상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주)트루라이프

■ ‘프래그 유정란’ 공급농장, 국내 1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획득



최근 밀실사육 되는 공장형 축산에 의한 가축의 면역력 저하, 질병 발생 등 부작용과 동물 권리 보호 이슈에 대한 대안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친환경 식품 유통 전문회사 (주)트루라이프(대표이사 정세진)의 ‘맛이 다른 신선함 프래그 유정란’ 공급농장이 ‘국내 1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아 화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를 국가에서 인증하고, 이들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농장동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전국 12개 산란계 농장 인증을 시작으로 돼지, 육계(식용닭), 한우와 젖소 농장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트루라이프 '프래그 유정란'을 생산하는 동일농장은 닭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 10lux 이상 조명도 유지, 청결한 환경, 질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까다로운 인증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환경 및 시스템을 갖춰 '국내 최초 1호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게 되었다.

식품사업본부 정삼수 본부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낳은 프래그 유정란은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 식품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자연과 공생(共生)의 가치도 생각하는 바른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래그 유정란'은 인터넷 홈페이지(www.etruelife.com)나 전화(080-999-1799)로 구입 가능하다.

올텍

■ 청년과학자상에 단국대학원생 2등 수상




글로벌 동물건강 영양 기업인 올텍(대표이사 예재길)이 축산업계 미래의 인재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올텍청년과학자상(Alltech Young Scientist)에 단국대에서 식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왕지엔핑양이 2등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텍은 전 세계 46개국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왕지엔핑양이 2등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텍의 청년과학자상은 대학 및 대학원생 중 동물의 영양과 사료 테크놀로지 등에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제출하여 지역별(Regional)과 글로벌(International)의 2단계를 거쳐 경합을 하게 된다.

지역별 수상자들은 미국에서 열리는 올텍국제심포지엄에 초청이 되며, 글로벌 최종 우승자는 석박사과정 부문은 1만달러, 대학생 부문은 5천달러의 상금을 받게 된다. 

올 추석 선물세트는 맛 좋고, 영양 만점인
'닭고기 선물세트'로 결정하세요!